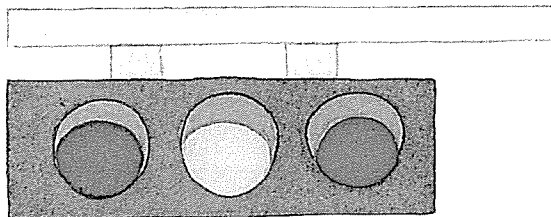


어린이 교통안전(1)



□ 어린이는 왜 보행 중에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가?

피아제(Piaget)의 어린이 발육발달 특성을 통한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어린이 발육발달 특성상 어린이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 때문에 교통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다.

* 어린이들은 종종 그들이 다치기 굉장히 쉬운 존재라는 것을 실감하지 못한다. 그래서 만약 차에 부딪히게 되었을 때 심각하게 다치거나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예측하지 못한다.

* 어린이들은 자기가 어른에게 언제나 잘 보인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어린이 쪽으로 달려오는 차의 운전자를 어린이가 볼 수 있으면, 운전자도 그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멈출 것이라고 생각한다.

* 어린이들은 굉장히 충동적이고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며 신호등이 바뀌는 시간을 기다리는 것을 지루해한다.

* 어린이들은 보통 어른들이 생각하는 상식과 다른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 작은 차보다 큰 차들이 더 빨리 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든지, 넓은 길은 위험하고 좁은길은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차가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잘 판단하지 못한다.

* 어린이들은 오직 그 순간에 가장 관심 있는 것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 어린이들은 어른에 비해 시야가 좁다. 어른의 2/3정도밖에 되지 않으며 키가 작기 때문에 어린이 자신이 볼

수 있는 범위와 운전자에게 잘 보이는 데 한계가 있다.

* 어린이들은 어디에서 소리가 나는지 금방 깨닫는게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소리가 났을 때 안전한 쪽으로 잘 피하지 못한다

□ 이것만은 지켜주세요.

〈안전한 도로횡단 5원칙〉

1. 우선 멈춘다

차가 다니는 도로를 건널 때 또는 골목길에서 차도로 나갈 때는 항상 우선 멈추는 습관을 길러주어야 한다. 일단 멈추게 되면 주위를 살펴볼 여유가 생겨나기 때문이다.

2. 좌·우 차를 본다

건너기 전에 좌·우로 차가 오는지 오지 않는지를 눈으로 확인해야 한다. 또한 운전자에게 잘 보일 수 있게 밝은 색의 옷을 입는 것이 좋다.

3. 횡단보도의 우측에서 운전자와 눈을 맞추며 손을 든다

횡단보도 우측의 화살표 표시를 설명하고 항상 우측부분으로 걷는 것을 습관화하도록 만들어준다. 아울러 운전자에게 손을 들어 '건너가겠다'라는 의사 표시를 확실하게 전달해 주어야 한다.

4. 차량의 멈춤을 꼭 확인한다.

운전자들은 횡단보도 앞에서 '멈춰야겠다'라는 생각보

다는 녹색신호에 '걸리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으로 보다 속력을 내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꼭 차가 멈춘 것을 눈으로 확인한 후 건너는 습관을 길러준다.

5. 건너는 동안 차를 계속 보면서 건넌다.

운전자가 멈추기 위해 브레이크를 밟으려다가 자칫 잘못하면 엑셀레이터를 밟을 수도 있다. 그렇게 때문에 항상 차를 보면서 길을 건너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10가지 어린이 교통사고 유형과 예방법>

1. 무단횡단사고

무단횡단을 하지 않으며 항상 횡단보도로 길을 건넌다. 길을 건널 때는 반드시 손을 들고 운전자와 눈 맞추기를 하며, 뛰는 것은 천천히 걷는 경우보다 사고 위험이 7배가 높으므로 항상 주위를 살피며 천천히 건너야 한다.

2.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 사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차와 거리가 먼 오른쪽으로 걷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 파란불이 들어와도 그냥 지나치는 차가 있으므로 꼭 눈으로 '차량 멈춤'을 확인하고 천천히 길을 건넌다.

3.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사고

차와 거리가 먼 오른쪽으로 걷는 것이 보다 안전하며 길을 건널 때는 꼭 손을 들어서 '제가 먼저 갈테니 멈춰주세요'라는 뜻을 밝힌다. 그 후 차량이 멈춘 것을 확인한 다음에 건너가야 한다.

4. 멈춰있는 차량 사이 횡단보도 건널 때

어린이가 멈춰있는 차량 사이에서 뛰쳐나가면 천천히 걷는 것보다 사고발생률이 18배나 높다. 반드시 손을 들어 운전자와 눈을 맞춰 '차량 멈춤'을 확인한 후 천천히 걸어야 한다.

5. 갑자기 뛰어 나오다 발생하는 사고

길 건너편에 친구나 엄마가 있다고 좌·우를 살피지 않고 무작정 길을 건너면 위험하다. 길을 건널 때나 찾길로 나갈 때는 항상 우선 걸음을 멈춘 후 차가 오는지 좌·

우를 살핀 다음에 건너야 한다.

6. 버스 앞 또는 뒤로 횡단할 때

버스의 바로 앞 또는 뒤로 뛰어 건너가면 버스에서는 어린이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 버스에서 내려서 길을 건널 때에는 적어도 운전자가 보이는 거리(버스에서 3M정도)에서 좌·우를 살핀 후 건넌다.

7. 큰 차가 회전하다 발생하는 사고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릴 때는 절대로 차도로 내려오지 말아야 한다. 큰 차가 급하게 회전하게 되면 앞바퀴보다 뒷바퀴가 안쪽으로 통과하기 때문에 반드시 인도 위에서 기다려야 한다.

8. 차 뒤에서 놀다가 발생하는 사고


멈춰있는 차는 대부분 뒤로 움직이므로 절대로 차 뒤나 밑에서 놀면 안된다. 운전석에 앉은 운전자에게는 어린이가 보이지 않는다. 혹시 차 밑으로 물건이 들어가면 운전자나 어른에게 꺼내 달라고 도움을 청한다

9. 어린이 보호장구는 필수

사고 시 가장 위험한 자리는 조수석, 어린이는 앞자리에 앉히지 않는다. 만 6세 미만의 유아는 반드시 어린이 보호장구를 착용하며 안전벨트는 부스터에 앉힌 후 안전벨트를 착용시키면 헐겁지 않다(안전벨트 착용 시 어린이는 90%이상 사망사고 감소 효과 있음).

10. 자전거, 롤러스케이트 탈 때

자전거는 반드시 체격에 맞게 타야 한다(안장에 앉아 발끝이 땅에 닿는 것이 적당함). 또한 자전거나 롤러스케이트는 충분히 연습을 한 후 무릎보호대와 헬멧을 착용하여 사고발생에 대비해야 한다. 찾길로 나갈 때 모퉁이를 돌 때는 꼭 차 또는 사람이 오는지 확인한다.

어린이가 평소 길을 다닐 때 어떻게 하는지 체크해 본다. 하나 체크 할 때마다 5점을 모두 체크하면 100점이다. 한가지라도 체크 못한 것이 있다면 앞으로 꼭 지키도록 노력한다. 그래야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자료제공 : <http://www.safekids.or.kr>)